



▲ MiG-29M

MiG-29기 성능에 관한 비판론 대두

냉전기간중 한때 NATO 공군에 심각한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어졌었던 MiG-29 Fulcrum기가 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 한 서방국가의 공군 지휘관으로부터 최근 혹평을 받았다.

독일 Luftwaffe 제73 전투비행단 Koeck 중령은 런던에서 개최된 전투기 관련 회의에서 MiG-29기를 5년동안 운용해본 결과 이 항공기의 신뢰성이 취약하며, 추진력과 항속거리 부족, 불량 항법체계, 중거리 공대공전투에서의 비효과성 등 문제점만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가 매년 작성하여 국방비 지출 수준 향상을 위한 로비 도구로 사용한

바 있는 “소련의 군사력”(Soviet Military Power)이라는 제목의 1990년도 발간 연감에는 MiG-29기를 ‘기동력이 뛰어나며, 제공능력이 우수한 위협적 전투기’라는 표현으로 평가되어 있다.

Koeck 중령은 이 항공기의 다중모드 레이다의 경우 신뢰성이 결여된 장비일 뿐만 아니라 정비유지 역시 대단히 어렵고 목표물 적중능력 역시 형편없으며 레이다 경보수신기(Radar Warning Receiver)는 거의 쓸모없는 장비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항공기의 자동운용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근접전투능력면에서는 항공역학적 우월성, 헬멧부착형 조준경, 적외선 탐지추적장비 및 R-73(NATO에서는 AA-11‘Archer’이라는 암호명 부여) 미사일 등으로 무장되어 최고의 항공기라고 부연 설명했다.

Koeck 중령이 지적한 개량필요 부분은 신형 레이다, GPS 항법장비, 2,000 파운드(8.9kN)의 추력 추가, AMRAAM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기능보유 등을 꼽았다.

완전무장상태에서 수백킬로에 불과한 전투반경하에서 MiG-29가 수행할 수 있는 이상적이며 유일한 임무는 거점방어(Point Defense)와 합동 항공전투력 운용 정도라고 한다.

MiG-29기는 1983년에 실전배치되었고 Luftwaffe 비행단은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된 후 이 항공기를 획득했다.

러시아는 이 항공기의 많은 부분을 개량하여 공중 재급유 능력, 내장연료 능력 추가, 신형 레이다 및 고추력엔진 장착을 실현하였으며,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구매한 것과 같은 수출형 사양에는 서방의 항법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독일이 현재 Laage 기지에서 운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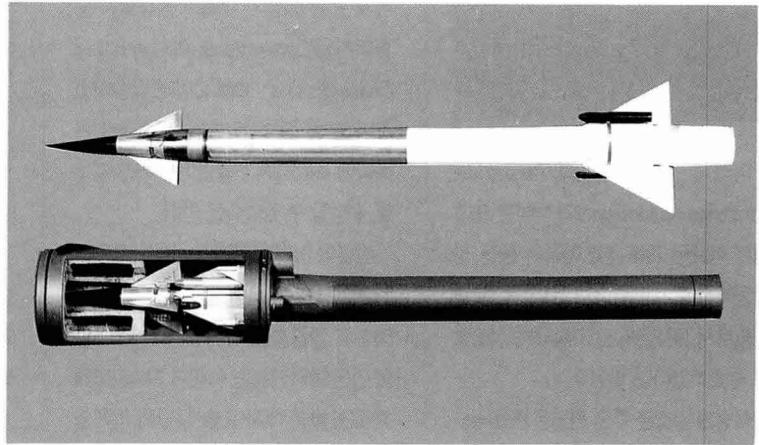
인 MiG-29기는 2003년에서 2005년
간 도태시킨후 Eurofighter 2000기
로 대체할 예정이다.

카타르, 영국과 10억파운드 상당 무기거래 협상

카타르는 금년초에 영국과 방위
협력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약 10억
파운드(미화 1,559백만불) 상당의
무기구매를 영국에서 구매하는데
필요한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해 협상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현재 카타르의 대외부채 규모
55억불을 감안할때 대금결제는 카타르
가 개발한 천연가스를 수년에 걸쳐 제
공하는 것으로 합의될 확률이 높다.

이번 무기거래에는 British Aerospa-
ce사의 Hawk기 12대와 Vickers Defen-
se Systems사의 Desert Challenger 주
력전차 50~60대, GKN Defence가 생
산하는 수량미상의 MOWAG Piranha
구륜장갑병력수송차량, Shorts Starb-
urst사의 방공미사일체계, Vosper



▲ Starburst 미사일

Thomycroft Barzan급 함정 및 기타 초
계정 등이 포함된다.

카타르 해군은 Vosper사로부터 이미
주문한 Varzan급 함정 4척중 초도분
2척을 인수했으며, 이 함정에는 Aeos-
patiale사의 MM40 Exocet 미사일이 장
착되어 있다.

터키 육군, 공격헬기사업 경쟁 추진

약 10년이나 끌어 온 터

키 육군의 공격헬기 사업(145대, 30억
불 규모)이 최근 견적요청서를 해당업
체에 발송함으로써 다시 시작되었다.

남아공의 Denel/Atlas사의 CSH-2
Rooivalk는 1995년에 터키가 이라크 지
역의 쿠르드반군을 공격할데 항의하는
뜻으로 남아공이 터키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발표하자 경쟁대상기종에서 제
외되었으며, 미국 장비 역시 터키의 쿠
르드 인권침해활동에 미국산 헬기를 사
용했다는 이유로 미 정부가 150백만불
상당의 AH-1W Super Cobra 헬기 10대

판매를 보류함에 따라 경쟁대상기종에
서 제외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남은 경쟁기
종은 Agusta의
A129, Eurocopter의
UHU-HAS Tiger,
Mil의 Mi-28이며,
1997년에 계약업체
를 최종 선정해서
2000년에는 장비생
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 Tiger 헬기



미국, 헬기 매출고 감소

미국의 항공산업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에 미국이 생산, 상업판매한 헬기 매출고는 313대에 336백만달러로서 1994년의 338대(433백만달러)보다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 원인은 Robinson사의 매출수량 감소(1994년 : 195대, 1995년 : 179대)와 Sikorsky사의 군용헬기 수출감소(S-70헬기~1994년 : 29대, 1995년 : 19대)에 기인한다.

1995년에 헬기 상업판매수량 가운데 292대는 민수용이었으며, 군수용은 21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캐나다 소재 Bell Canada사가 민수용으로 생산판매한 수량 144대와 미국군에 판매한 TH-67기 45대, 캐나다군에 공급한 412CF Griffon 33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4년에 Bell Canada사는 총 208대의 헬기를 판매한 바 있다.

미국, Tomahawk 미사일 정확성 입증

미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96년 9월 3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시 미국공군의 B-52 폭격기로부터 발사된 13발의 순항미사일 가운데 겨우 2~5발 정도만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한다.

작전에 참가했던 2대의 B-52 폭격기

에서는 총 16발의 재래식 공중발사 순항미사일(Conventional Air-Launched Cruise Missiles : CALCM)이 발사되었으나 3발은 불발되었으며, 그 중 한발은 바다에 추락하여 13발만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이번 작전에서 사용된 해군의 Tomahawk 순항미사일 총 31발은 평균 90%의 명중률을 나타냈는데, 9월 3일에 있는 공격에서는 이라크 지역내 6개의 목표물에 대하여 총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결과 12발이 목표지역을 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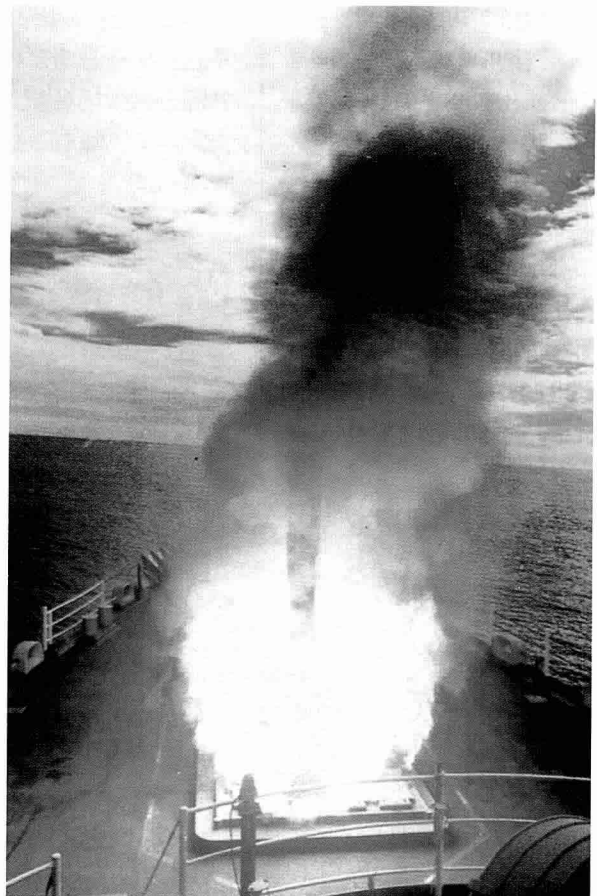
9월 4일에 있는 2차 공격에서는 총 17발을 4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여 12~15발이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예상보다 높은 적중률을 나타냈으나, 위성항법장비(GPS) 관련 자료의 계산과 입력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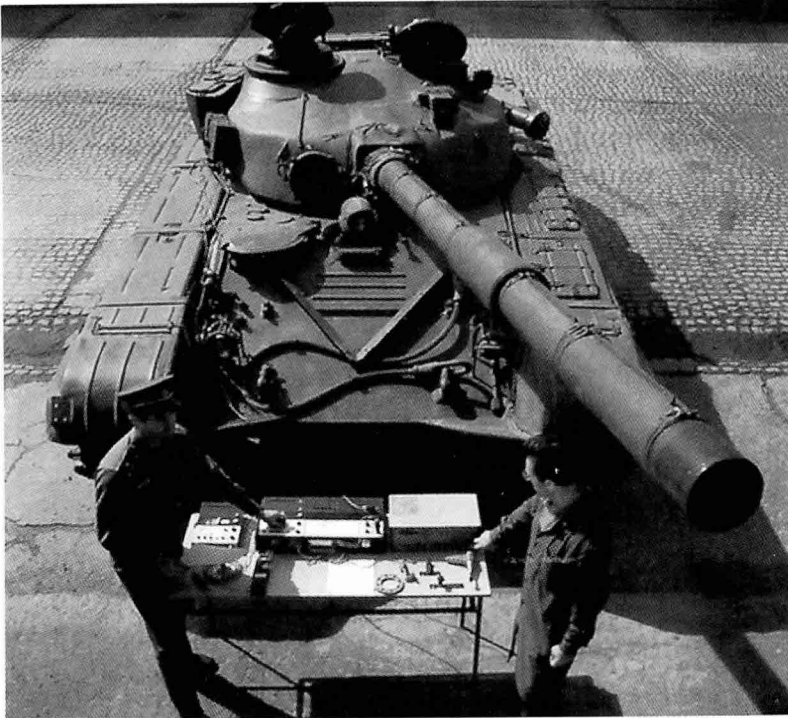
美 국방부, 순항미사일 지휘통제체계 문제점 시인

美 국방부 관리에 의하면美 중앙사령부가 이라크에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할때 몇가지 지휘통제체계상의 혼선이 발생되었음을 시인했다.

당시 B-52기에서 재래식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무기의 성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

▼ Tomahawk 미사일 발사 장면





▲ T-72 MBT

는 중앙지휘요원이 마지막 순간에 목표물을 수정함으로써 목표물 요격에 실패했다고 한다.

Boeing사에서 생산하는 이 미사일은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탄두가 장착되어 목표물 부근에서 수많은 철편으로 분산됨으로써 견고한 시설물이나 병커를 폭파하기 보다는 방공미사일, 레이더 및 지휘차량과 같은 노출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적합한 미사일이다.

인도, 이스라엘과 장비개량사업 추진

인도군과 국방연구개발본부(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 DRDO)는 4억불에 달하는 장비개량사업을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는 자체개발 경전투헬기 생산에

응용된 야금기술과 합성기술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인도 육군은 Elbit사와 600대의 러시아제 T-72 전차 및 900대의 BMP-1, BMP-2 보병전투차량에 정착할 열상장비 및 사격통제 장비에 관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공군은 80대의 Jaguar기와 125대의 MiG-21기에 Elta ECM 체계와 이스라엘제 레이더 및 항법장비를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공군은 IAI Tamam사의 종합전술 INS 및 GPS체계를 65대의 MiG-27M기와 46대의 Mirage 2000H기에 결합하는 문제도 협상중에 있으며, 해군은 1997년에 진수 예정인 INS Delhi DDG급 주력구축함에 Barak 함대공 미사일 수직발사대 12기를 결합하는 계약은 거의 체결단계에 있고 Mysore 및 Bombay 구축함에도 1999~2000년 사이에 이 장비를 장착할 계획이다.

필리핀, 캐나다의 F-5기와 광산채굴권 구상무역 추진

필리핀 정부는 개량형 F-5 전투기와 미개발광산을 구상무역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각의 최종 승인을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미국의 장비결합업체인 Triton Systems사가 참여하여 캐나다로부터 18대의 개량형 F-5 전투기를 획득, 필리핀 공군에 제공하는 대가로 금광 및

구리광 채굴권을 필리핀 정부로부터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 거래금액 규모는 75백만불 정도이며, 원래는 필리핀 공군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터키로부터 획득할 계획이었으나, 터키 정부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캐나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획득대상 F-5기는 개량형 항법장비와 비행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필리핀 공군은 이 항공기를 앞으로 도입될 미국의 F-16, 러시아의 MiG-29, 프랑스의 Mirage 2000 등 첨단 전투기 훈련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필리핀의 군현대화계획에 의하면, 향후 15년간에 걸쳐 총 1,700억페소(64.8억불)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500억 페소는 2001년까지 투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 조달본부 외자부 제공)